

비평 시대의 젠더적 기원과 그 불만*

—「분례기」에서 「객지」로, 노동 공간의 전환과 ‘노동(자)-남성성’의 구축

소영현**

1. ‘비평 시대’ 재고
2. ‘외설성’, ‘건강성’, 미학적 남성성
3. 「분례기」로 본 ‘민중’ 재현의 비평적 수행성
4. 여성의 배치와 노동의 젠더: 「분례기」에서 「객지」로
5. ‘노동 현장’ 재현과 작업장 리얼리즘
6. 결론을 대신하여: 제3세계 여성운동이라는 인식

국문요약

이 글은 ‘비평 시대’가 개막되기 시작한 1970년대 전후로 한국문학의 대표적 재현 대상이었던 존재들의 운곽을 젠더적 관점 속에서 들여다보고 그 재현적 틀을 재고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누락되고 배제된 관점과 영역은 어떻게 복원될 수 있는가. 재현 대상에 대한 젠더적 관심은, 작가의 여성관이나 작품을 통해 구현된 여성의 면모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소설이 구현하는 세계의 젠더적 성격에 대한 관심에 가깝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념의 외화인 논리의 결을 쫓기보다, 『창작과비평』의 이름으로 197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택되거나 거론되었으며 담론적 위상을 마련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이 전하거나 재조직하고 있

* 이 논문은 2008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3).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는 집합감정에 주목했다. 방영웅의 『분례기』와 황석영의 『객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시민, 민중, 대중이라는 구분들에 의해서는 보이지 않거나 볼 수 없는 공유지반과 그것이 갖는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주제어: 비평 시대, 젠더, 감정, 외설성, 건강성, 방영웅, 분례기, 황석영, 객지)

페미니즘 이론은 사회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 운동이 없다면 페미니즘 이론은 아무 내용도 없을 것이고, 페미니즘 운동은 다양한 방향과 형식으로 언제나 이론 활동에 개입해왔다. 이론은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활동이다.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총체적 자기반성이 일어나고, 가치와 우선순위와 언어에 관한 분쟁이 등장할 때마다 이론적 활동이 일어난다. 내재적 비평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에도, 또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석을 안정시키지 않고 대치시키는 운동을 만드는 것의 민주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Judith Butler

1. ‘비평 시대’ 재고

계간지 시스템의 개막과 함께 열린 ‘비평 시대’¹⁾는 이제 전면적인 체

1) 다른 글에서 현재 문학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문학 내부의 것으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계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혁신들이 긍정적 의미를 갖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문학과 그 바깥’이라는 인식에는 근본적 성찰이 요청되는 것이다. 동시에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듯, 최근 문학장의 문제들은 문단을 경계로 프레임화되고 있다. 문단의 안과 바깥이라는 경계의 프레임은 문학장 자체가 힘이자 권력이라는 착각을 불러온다. 문학장의 힘의 불균형과 권력의 배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문학장 자체의 문제로 뒤바뀌어버리는 것이다. ‘문단 안과 바깥’이라는 프레임은 그 경계를 수직적 위계로 재편

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 놓여 있다. '비평 시대'는 출판 시스템과 등단, 문학상,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등 각종 제도의 복합적 작동 속에서 그 권위와 권력을 유지해왔고, 지난 몇 해 동안 문학의 이름으로 별어진 추문들 속에서 더 이상 현상 유지가 불가능한 국면을 맞이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논란은 비평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시사한다.

이 글은 '비평 시대'가 개막되기 시작한 1970년대 전후로 한국문학의 대표적 재현 대상이었던 존재들의 윤곽을 젠더적 관점 속에서 들여다보고 그 재현적 틀을 재고해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들은 종종 시민, 민중, 대중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며, 한국문학의 대표성을 갖춘 존재로 다루어졌다. 시민, 민중, 대중을 세분하는 섬세한 논의들, 그것에 대한 문학론과 메타 문학론이 그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재현 대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피해가기는 쉽지 않은 논점임을 말해준다. 한국 문학 영역에서 그만큼 비중 큰 논의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시민, 민중, 대중이라는 구분과 그것이 끌어들이는 주체와 사회의 구성적 지반과 성격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와 연동된 문학론이 아니라, 재현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다루어보고자 하며, 무엇보다 그들에 대한

하는데, 문인 주니어, 상비군, 비 등단 문인이라는 인식은 그 수직적 위계로부터 마련된다. '문단 안과 바깥'이라는 프레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단이라는 경계 혹은 그 외벽이 이러한 프레임과 인식으로 더 탄탄해진다는 데 있다. 문예창작학(과)라는 제도가 이러한 프레임 형성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간 제기된 '문단 내 성폭력' 문제도 좀더 엄밀한 접근들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문단 내 성폭력' 폭로가 문학장 전체를 내파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보다 잣아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문단 안과 바깥이라는 경계/위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평 시대'는 비평가 중심 시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1970년대 전후로 형성되어 지금껏 계간지, 편집위원 제도, 출판 시스템, 문학상과 등단 제도 등으로 유지되어온 하나의 체제를 가리킨다. 이 글은 '비평 시대의 장기 지속의 여파'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재현 방식을 젠더적 관점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비평 시대’는 문학이 삶을 메타화하고 성찰하(게 하)는 문화의 대표로서 이른바 시대정신을 구현한다는(/포착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던 1970년대 전후로 문학장에 계간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개막되었다.²⁾ 대표적 계간지인 『창작과비평』이 1966년부터, 『문학과지성』이 1970년부터 그 지향의 방점을 각기 다른 곳에 두고 있었지만, 문학을 거점으로, 이때의 문학이 문화의 대표격이라는 점에서, 말하자면 문화를 거점으로, 문학과 나아가 문학으로 텍스트화된 삶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실천적 개입에 주력하고자 했다. 『창작과비평』이 방영웅의 『분례기』에 대한 비평을 통해, 『문학과지성』이 기 발표작을 전문 재수록하는 코너를 통해,³⁾ 각각의 계간지가 지향하는 한국문학의 정향성을 가시화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이 구축하고자 한 문학의 범주와 실체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1970년대 전후로 문학은 전문 독자인 비평가를 매개로 독자와 만나게 되었고,⁵⁾ 그 의미는 비평가의 가

2) 가령, 『창작과비평』은 계간지 10호를 맞이하면서 기관지 등을 제외한 계간지로서 10개월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장수의 기록”을 세웠음을 자축한 바 있다. 백낙청, 『창작과비평』 2년반, 『창작과비평』, 1968년 여름호, 366쪽.

3) 백낙청, 『창작과비평』 2년반, 『창작과비평』, 1968년 여름호, 368-375쪽; 김병익·김치수·김현, 『창간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 창간호, 1970년 가을, 6쪽. 문면으로만 보자면, 『문학과지성』에 재수록되는 글은 “비평의 대상이 될 만한 모든 글”이며, 그것은 시, 소설뿐 아니라 평론과 논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이에 따라 문학에 치우친 재수록 경향을 제한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궁극적으로 재수록의 의미는 “한국문화를 이해” 혹은 구축/재편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4)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 405-441쪽; 송은영, 『『문학과지성』의 초기 행보와 민족주의 비판』,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15, 11-46쪽; 조연정, 『세속화하는 지성—『문학과지성』의 지성 담론에 대한 재고』, 『한국현대문학연구』 45, 2015, 313-354쪽.

5) 새로운 문학, 새로운 창작과 비평에 대한 논의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독자를 상정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간 가시화되지 않았던 독자를 중심으로 문학의 의미를 재규정 혹은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

치 평가와 선별 작업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1970년대 전후 문학과 메타 문학을 ‘비평가의 시선과 욕망’이나 ‘남성 비평가의 성맹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논의는⁶⁾ 이런 문맥 속에서 타당성을 확보한다.

‘비평 시대’를 창작에 대한 비평의 우위가 확보된 시대로 간명하게 선언할 수도 있지만, 들여다보자면 ‘비평 시대’는 역설적으로 비평이 ‘문학’ 비평이자 ‘한국문학’ 비평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고하게 안착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보다 넓은 함의를 가졌던 비평 범주는 이후로 점차 비평의 하위 범주로 이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선후의 관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문학의 하위 범주로서 시민, 민중, 대중으로 호명된 문학적 대표에 대한 재현은 근대문학의 형성과 함께 구축되어 1970년대 전후로 ‘비평 시대’를 열어젖히며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제 시민, 민중, 대중에 대한 문학적 관심은 희박해진 편이며 그러한 개념으로 문학을 이해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따지자면 시민, 민중, 대중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이후로도 최근까지 꽤 오랫동안 농민, 노동자, 여성, 타자, 소수자, 하위주체,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으로 끝없는 변주를 거치며 지속되었던 게 사실이다. 말하자면 문학과 비평의 위상이 역전되는 과정을 문학과 비평의 관계로만 해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더구나 현재 비평은 ‘문학’에 종속된 범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⁷⁾

하다. 그간 문학장은 전문 독자인 비평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상 전문 독자 너머의 독자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비평가의 비중이 커지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혜진, 『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 『문화과학』 85, 2016년 봄호, 83-105쪽; 소영현, 『실천적 행위로서의 비평 혹은 독서』, 『올빼미의 숲』, 2017.

6) 손유경, 『현장과 육체-『창작과비평』의 민중지향성 분석』, 『현대문학의연구』 56, 2015, 39쪽; 김우영, 『초기 『창작과비평』과 『분례기』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49, 2016, 397쪽.

이 글은 우선 바로 이 지점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변주의 형태를 띠면서도 문학 범주에서 재현의 원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그것을 지속시킨 힘은 무엇이며 그 연원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계기들은 무엇이며 재현의 정치는 어떤 문화적 배치와 삶의 재배치를 이끌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비취볼 때, '비평 시대의 의미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질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970년대 전후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계간지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한 변주 과정 자체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그로부터 기원을 반복하면서 '비평 시대'를 성화(聖化)하는 일과는 다른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관심이 (그간 다각도로 검토된바) 비평 우위의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추적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문학의 면모들이 무엇인가로 향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비평 시대의 변천사에 대한 역추적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과정에서 어떤 인식이 누락되고 어떤 영역이 소거되었는가를 복원하기보다 그러한 역사를 보충하고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 민중, 대중을 세분화하거나 그에 입각한 문학론과 비평론을 괄호에 넣고자 하는 근본 이유는 우선 이 글이 '비평 시대'의 개막과 함께 구축되었던 대표적 재현 표상을 젠더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누락되고 배제된 관점과 영역은 어떻게 복원될 수 있는가. 재현 대상에 대한 젠더적 관심은, 가령, 작가의 여성관이나 작품을 통해 구현된 여성의 면모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소설이 구현하는 세계의 젠더적 성격에 대한 관심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념의 외화인 논리의 결을 쫓기보다, 『창작과비평』(이나 『문학과지성』)의 이름으로 1970년대

7) 문학의 위기가 비평의 위기와 곧바로 등치될 수 없음에도, 의미론적 착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비평이 문학의 하위 범주로 위상이 줄어든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택되거나 거론되었으며 담론적 위상을 마련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을 통해 새롭게 정초된 재현원리의 지평을 짚어 보고, 작품이 전하거나 재조직하고 있는 집합감정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⁸⁾ 이를 통해 시민, 민중, 대중이라는 구분틀에 의해서는 보이지 않거나 볼 수 없는 공유지반과 그것이 갖는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2. ‘외설성’, ‘건강성’, 미학적 남성성

‘미학적 외설’이 백낙청에 의해 ‘건강성’으로 명명되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설성’은 어떻게 ‘건강성’으로 호명될 수 있는가.⁹⁾ 사실 ‘외

8) 집합감정을 읽어낸다는 것은, 다르게는 현장성의 복원을 의미한다.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원활한 소통으로 모든 이슈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버리는 지금 이곳의 풍경에 비추어, 계간지는 담론의 형성과 소통에 비추어 그리 유용한 매체로 보기 어렵다. 계간지 형식에 다양한 변화가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특정한 소수의 기획이기보다 개별적인 논의가 자유롭게 확산되어 담론으로 형성되거나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자율적 운동에 비하자면, 계간지 형식은 전체를 통어하는 시선과 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를 갖는다. 비평을 비평적 논리나 작품 내재적 독해로 한정한다는 것은, 비평에 대한 사후적 검토가 대개 저지르기 쉬운 오류로서, 당대성/현장성이 사상된 형태로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속지학자인 베테르트 그리마가 언급한 바 있듯이, “감정은 문화”이다. 집합감정을 읽는 것이 비평의 현장성을 복원한다는 것은 이러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논리가 되면서 빠져나간 것들, 언어 이전에 공유했으나 문면을 통해서는 복원될 수 없었던 사회적 무드의 복원을 통해 시대의 다른 배치를 읽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M. 레디, 『감정의 항해: 감정 이론, 감정사, 프랑크혁명』, 김학이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서론 참조.

9) 앞서 다른 자리에서 현실의 정치적 압력과 문학적 지속함과 문화적 음란성이 ‘건강성’의 이름으로 허용되었던 사정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중심/주변의 위상학과 한반도라는 로컬리티』, 『현대문학의연구』 56, 2015, 27-28쪽

설'은 '건강성과 결코 가까운 말이 아니다. 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외설적'이라는 수식어를 얻는 일은 명예로운 일이 아니며 정반대로 쉽게 벗기 어려운 낙인이 찍히는, 치욕적인 일이다. '외설'은 정상적인, 선량한, 건전한, 건강성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성기와 성행위 표현을 두고 '외설'을 언급했지만, 무엇이 외설인가를 따져 묻자면 답변은 쉽다. 오히려 '외설'의 규정에 대한 판단은 '누구의 외설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유보될 필요가 있다.¹⁰⁾ 정동/정념 연구자인 권명아가 지적한 바 있듯, 문학 텍스트의 외설(/음란, 풍기문란)이라는 판단은 "당대인들의 반응 구조를 형법으로 재구성하는 문제" 즉 시대적 집합감정의 규율화와 주체의 생산 그리고 삶의 윤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¹¹⁾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에서 겨울호까지(6~8호) 3호에 걸쳐 분재한 『분례기』에서 묘사된 몇몇 장면들로 '외설'을 판정하기는 적절치 않으며 그것은 '미학적 외설' 즉 '건강성'이라는 판정은, 그러니까 『분례기』 내부가 아니라 『분례기』의 의미를 읽는 비평가와 그에 의해 판정된 당대적 집합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한다. 따지자면, 이 글이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 집합감정의 젠더이기도 하다.

이후 '건강성'은 장편소설 『쌈짓골』과 『자랏골의 비가』 출간을 계기로, 작품의 문학적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언급되듯, 민중의 대표격인 '건강한 동네 청년'을 거론하거나 민족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문학으로서의 '건강한 농촌문학'을 언급하는 자리 혹은 '퇴폐적인 상업문화를

각주 51 참조.

10) 음란과 외설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마광수와 장정일 작품의 '판금'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 법적 차원에서 규정된 '외설/음란'은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침해하는 것, 즉 시대와 공간에 따라 매번 재규정되는 집합감정에 따라 잠정적으로만 합의되는 것을 의미한다. 『풍속 금서와 사회적 감성』, 『대산문화』 52, 2014년 여름호, 53-55쪽.

11) 권명아, 『소년범, 작가, 음란범』,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285쪽.

극복하고 건강한 농촌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농촌문학이 선도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언급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확보하거나 거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이런 점에서 보자면, ‘외설성’과 ‘건강성’의 함의와 상관성에 대한 검토 자체는 인과적 논리로서 설명될 수 있는 논의가 아니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창작과비평』 2년 반의 가장 뜻 깊은 수확으로 『분례기』를 거론하면서 백낙청이 강조했다듯, 그 자신에 의해 문단적 이슈가 되었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분례기』를 재론함으로써 『분례기』를 『창작과비평』의 “의도와 분별력을 판가름하는”(368쪽) 시금석으로 삼고자 했던 의도 자체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¹³⁾ 이런 의도에 대한 판단을 염두에 둔 채로, 이 글에서는 『분례기』에 대한 평가이면서 말해주는 바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다.

우선 ‘외설성’과 ‘건강성’ 논의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대목, 『창작과비평』 10호 출간을 기념하면서 백낙청이 방영웅의 『분례기』를 두고 한 평가로 돌아가 보자. 『분례기』에 나오는 적지 않은 성기와 성행위에 관한 장면들을 두고 ‘외설성’을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은, 그 장면들이 “적확하고 밀도 있는 언어로 이야기의 현장을 곧바로 살려내는”(369쪽) “치열한 집중력과 묘사력”(373쪽)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으며, 그 근거는 ‘사과는 사과다’라는 진실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림으로”(375쪽) 보여준 세잔의 시도가 갖는 의의를 통해 해명된다. 백낙청은 우선 너절하고 불결한 삶 자체와 그에 대한 묘사를 ‘건강성’으로 명명한

12) 김춘복·송기숙·신경림·홍영균·염무웅, 『좌담회-농촌소설과 농민생활』, 『창작과비평』 46, 1977년 겨울호, 2-40쪽.

13) 이는 창비판 『분례기』 출간을 두고 방영웅이 언급한 바 있듯, 『분례기』에 대한 당대의 관심은 소설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당시에는 동인지에 다름없었던 『창작과비평』과 편집인 백낙청에 대한 관심이었다. 방영웅, 『창비판 『분례기』를 펴내며』, 『분례기』, 창작과비평사, 1997, 5쪽.

다. “객관화된 장면에서 작가의 시선이 보여주는 특징을 필자(백낙청)는 한마디로 <건강하다>고 부르고 싶다”(373쪽)고 언급한다.

그런데 비평의 문면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그런 판단의 근거가 『분례기』의 내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었다. 폭력과 범죄, 질병과 죽음 등으로 채워진 삶 자체와 그것을 운명처럼 사는 이들의 ‘재현’이 ‘건강성’으로 명명될 수 있는 근거는 작품 내부가 아니라 『분례기』가 놓인 자리와 그것이 환기하는 모순적 현실에 있었다. “똥예가 사는 시골의 畸形性이 서울과의 완전한 단절로써 특징지어지는 것은 서울의 기형성이 농촌과의 유기적 유대의 결여에 기인하는 것과 정확히 대응되는 현상”이라는 입장에 근거해서, 백낙청은 “오늘의 똥예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산중에서의 봉욕이나 남편의 구타보다도 서울에 의한 농촌경제의 수탈과 매스컴의 電波와 活字 그리고 여성잡지의 原色畫報들을 통한 서울로부터의 집요한 정신교란작업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375쪽)으로 판정한다. 똥예 혹은 그녀로 대변되는 하층 여성이 수시로 발생하는 강간이나 가정폭력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 속에서 농촌의 착취를 통해 진전되는 도시 중심의 근대화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여기서 너절함 자체인 농촌의 삶이 인공적이며 타락한 세계인 도시의 삶과의 대비 속에서 가치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치판정의 내용과는 별개로, 그 가치화 작업이 비평가의 작업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자의 이해 범주가 비평가에 의해 앞서서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로 도시와의 대비 속에서 규정된 반자본적, 비문명적 위치 지표 위에서 『분례기』가 호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 「분례기」로 본 ‘민중’ 재현의 비평적 수행성

농촌여성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다. 70년대 후반에 확인되는 바, 이는 『창작과비평』의 농촌여성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기도 하다.¹⁴⁾ 농촌여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에 앞서, 「분례기」가 도시의 삶과의 대비 속에서 가치화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재현인지 여부를 면밀히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분례기」의 시공간을 근대화와 산업화 이전의 세계로 명명할 수 있다 해도, 그러한 명명이 시공간성이 뚜렷하지 않아 보이는 「분례기」의 소설적 배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짚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한의 소설을 ‘농촌소설’ 범주로 분류하는 비평적 인식의 근거에 ‘보편/특수’와 ‘중심/주변’이라는 위상학이 작동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례기」와 『창작과비평』에 실었던 방영웅의 소설들, 「달」이나 「사무장과 배달원」 등의 의미는 문학을 넘어서는 비평적 작동 속에서 마련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분례기」의 시공간을 전근대적 농촌으로 가정하는 판정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전근대적 농촌 공동체에서라면 쉽게 상상될 법한 가족 형태가 「분례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으로서의 의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는 이들이 거의 없으며, 노동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만 수행될 뿐이다. 병어리 부인이 자신이 낳은 자식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으며 불어나는 젖을 남편에게 먹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노모가 부부에게서 내쳐진 아이를 돌본다. 부부는 부모와 형제 혹은 자식에 대한 어떤 의무나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 철봉과 승봉 가족의 일상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바, 「분례기」의 세계는 절제 없으며 불결한 세계, 온갖 폭력과 범죄가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일상화되어 있는

14) 이지은, 「오늘의 농촌여성」, 『창작과비평』 52, 1979년 여름호, 57쪽.

비인간의 세계이다.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감도 성실한 삶에 대한 신뢰도 없으며 그저 생산 노동의 바깥에 놓인 남자들과 남편에 대한 헌신이나 신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들만 넘쳐날 뿐이다.

『분례기』 안에서 인물들은 그런 세계를 자연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윤리 이전의 세계를 산다. 다르게는 문명 이전의 세계를 산다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세계가 문명에 대한 비판적 거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은 엄밀하게는 적절하지 않다. 『분례기』에는 인륜이 없으며 그에 따라 인륜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억압성도 없다. 문명과는 무관한 듯 존재하는 이들의 삶이 반문명의 의미 확보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노름으로 일상이 채워진 남자들로 들끓는 사회이지만, 노름이 한탕주의에 대한 비판의 계기를 환기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소설 내부로부터는 확인할 수 없는 정황들, 생산으로 이어지는 노동이 가능하지 않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 없이 지속될 뿐인 윤리 이전의 삶은 역사적 시간에서 탈락되어 전망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을 암담하게 들여다보게 한다.

따라서 소설 『분례기』에서 법칙과 윤리 이전의 세계가 재현된다는 판단은 비평적 담론 속에서 힘을 얻는다고 해야 한다. 가령, 결혼을 앞둔 봉순은 성폭력을 당한 후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하며 용팔에게 성폭력을 당한 똥예는 스스로를 자책한다. 자신이 당한 일의 의미를 알고 통곡하는 똥예를 두고도 성폭력 가해자인 용팔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똥예는 자신의 봉욕을 중일 나무는 하지 않고 꽃들을 짓밟은 일에 대한 처벌로 받아들인다. 결혼을 앞둔 봉순이 성폭력을 당한 후 자살을 하자, 똥예는 개구리의 울음에서도 “요 뻘뻘스러운 년아, 봉순인 죽었는데 왜 안 죽니. 저년은 죽일 년이다. 때려 죽여라…….”¹⁵⁾라는

15) 방영웅, 『분례기』, 홍익출판사, 1968, 139쪽.

식의 자신에 대한 비난을 환청처럼 듣기까지 한다.

봉순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통례를 자책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은 작가에 의해 그녀들에게 내면화된 순결의식으로 암시된다. 그런데 가족과의 성행위 이외의 것을 위반행위로 여기는 순결의식이 미혼 여성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상상은, 실상 제약 없는 욕망을 발현한다고 상정된 '민중'의 면모에 그리 부합하지 않는다. 근대 이전에는 상층 여성의 통치술이었으며 근대 이후로는 중산층 가족에 기반한 성별 분할 인식을 떠받치던 순결의식은 문명 이전의 것이자 합리성과 이성의 규율 이전의 인식이 아니다. 근대 이전에도 순결의식이 하층 여성의 삶 전체를 제약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분례기』 안에서 통례와 영철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하층민들에게 일부일처제는 피할 수 없는 규범으로서 작동하지 않았다. 하층민에게 결혼과 이혼은 특별한 수속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¹⁶⁾ 이렇게 보자면, 『분례기』의 세계가 비균질적이라는 사실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 세계가 문명 이전의 시공간이 아니며 몰역사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소설의 문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통례와 영철 사이의 갈등은 채워지지 않는 통례의 성적 욕망과 연관되어 있다. 소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사는 영철과는 대조적으로 통례는 욕망과 충동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 남편에 의해 의미화되지 못하는 그녀의 욕망은 소설 내에서 삶의 충동과는 정반대로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정폭력을 부

16)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고해지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도, 혼인 관계는 쉽게 성사되거나 파기되었으며, 공식적 혼례식 없는 개방적 혼속이 드물지 않았다. 조선의 성에 대한 규율이 상층의 여성에게 매우 엄격했던 것과 달리 하층의 여성들은 성적 억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김지수, 『15세기 조선의 혼인, 가족, 유교적 가부장제』 『집합감성의 계보』 엘피, 2017, 345-346쪽; 정지영, 『조선 후기 첩과 가족질서: 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역사』 61, 2004, 6-42쪽.

르는 계기로서 작동한다.¹⁷⁾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든가, 여자의 역할은 식모이자 갈보여야 한다는 — “그저 부엌에 와선 부엌데기가 되구, 잠자리에선 갈보처럼 해야 하구, 밥 먹을 때는 기생이 돼야 그게 알짜지집여…….”(290쪽) — 시어머니 노랑녀의 말은 성적 착취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적 인식의 반복일 뿐이며, 이러한 인식은 “남성 위주의 세계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의 끔찍성”¹⁸⁾에 분명하다. 폭력적 세계의 재현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지만, 그 재현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필요하다. 재현에 대한 비평적 의미 지평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폭력적 남성성으로 채워진 바로 그 세계가 비평적 시야에 의해 건강성으로 호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례기』의 세계가 『분례기』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창작과비평』에 의해 ‘민중’의 재현을 실감하게 하는 작가 이문구의 초기작에서 그 세계는 도시 변두리를 배경으로 그대로 반복·재현된다. 1968년에 발표된 이문구의 소설 『두더지』나 방영웅의 두 번째 소설인 『사무장과 배달원』에서 도시라는 공간성과 주변부적 인물이라는 변두리성에 대한 주목이 두드러졌지만, 소설을 채우는 것은 허풍, 과장, 사기, 밀수, 횡령, 서류 위조, ‘뽕땅’, 공갈, 협박, 오입질, 성매매 등 온갖 잡스러운 범죄와 그것을 행하는 비윤리적 인물들이다. 폭력과 범죄가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계, 그것이 삶 자체에 더 가깝다고 판단할 때, 그 삶은 무엇이며 누구의 것인가. 당대의 비평 작업은

17) 노름에 미쳐 가끔 들어와서는 잠만 자는 남편 영철에게서 점차 갑갑함을 느끼게 된 똥례를 두고 주먹질을 하면서 영철은, “내가 너한테 손을 댔지만 말여, 지금 내 가슴은 칼로 베는 듯 아프다. 왜 그렇기 서방 맘을 몰라주느냐 말여.”(『분례기』, 285쪽)라는 식으로, 그것이 자신의 맘을 몰라주는 똥례의 탓임을 지적한다.

18) 방민호 해설, 『분례기』, 창작과비평사, 1997, 338쪽.

그 삶이 미달태이거나 타락한 '시민'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민중'의 것이 라(/것이어야 한다고) 여기는 듯하다. 비평에 의해 상정된 독자는 누구이며, 그 독자의 젠더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⁹⁾

4. 여성의 배치와 노동의 젠더: 「분례기」에서 「객지」로

여성 주인공의 이름을 제목으로 내세운 장편소설의 미학적 외설성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것인가. 여성의 착취를 통해 보존되는 세계의 건강성이 여성혐오에 근거한 남성성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사실 「분례기」 자체만으로 그 면모가 뚜렷하게 포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건강성의 젠더가 선명해지며 거기에 문학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70년대 문학사의 출발점”²⁰⁾으로 황석영의 「객지」가 비평적 고풍을 받으면서라고 해야 한다.

근대의 입사의식으로도 이해되는 남성들의 공범의식과 순결한 여성의 희생 서사는 근대 이후 한국문학의 피할 수 없는 특징으로, 시대 한정적으로만 접근해보더라도, 『산문시대』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친밀성을 나누는 남성들에게 폭력적으로 희생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²¹⁾ 도시로 대표되는 근대로 진입하려는 존재들은 젠더적 폭력을 수행하면

19) 1960년대 혹은 김승옥으로 대표되는, 너절한 삶은, 도시와의 관계에서 예각화되는 면모로, 매번 갈구하지만 좌절되는 욕망은 '도시'와의 관련 속에서 의미화된다. 황폐한 서울살이 중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연애를 꿈꾸며 그녀를 풀어야 할 자물쇠로 여기는 박태순 소설 「연애」(『창작과비평』 2, 1966년 봄호)에서 단적으로 확인되듯, 도시는 여성적으로 은유되며, 우연처럼 대개 너절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그 여성은 연애는커녕 감히 말도 붙여보기 어려운 여대생으로 그려진다.(이문구, 「두더지」)

20) 염무웅, 「최근소설의 경향과 전망—77년의 작품, 작품집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47, 1978년 봄호, 327쪽.

21) 권보드래,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한국문학연구』 39, 2010, 282-284쪽.

서 존재증명을 성취한다. 그러나 남성의 존재증명이 폭력적 성의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그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점은 민중의 건강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노동과 젠더의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에 소개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인 줄리엣 미첼이 지적한 바 있듯이, 경제체제의 형태를 막론하고 여성의 노동 수행은 언제나 과도했다. 여성이 노동 수행적 주체가 아닌 적은 단 한번도 없지만, 언제나 문제는 “노동의 형태”였다. 실제로 “수많은 농촌사회에서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혹은 그들보다 더 많이 농사일을 해왔”²²⁾지만, 그들의 노동이 생산 노동으로 인식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있다 해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드물게만 있을 뿐이다. 『분례기』에서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성적 존재인 성기로서만 의미화된 동물적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분례기』의 인물들이 성적 존재로만 존재할 수 있는 일상을 여성의 노동이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은 후경화된 채로만 그려질 뿐이다. 똥레의 집에서 똥레가, 똥레의 시집인 영철의 집에서 노랑녀의 딸인 동평이 그러하듯, 미혼의 여성은 가족을 위한 가내 노동뿐 아니라 집안의 온갖 허드렛일이나 집안일을 도맡아 수행한다.

매일 싸움질이 일상인 석서방과 석서방댁은 눈이 쌓이는 겨울에도 양식이거나 나무 장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술집과 노름방을 전전하는 아버지나 자식이 굶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똥레는 가족을 돌보는 존재이다. 심지어 성폭력을 당한 봉순이의 자살로 인해, 자신도 죽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중에도 똥레는 죽으러 가는 길에 가족들의 식사를 챙긴다. “아무리 죽으러 가는 몸이지만 밥을 해서 한그릇을 다 먹고 식구들의 밥도 챙겨놓는다. 석서

22) 줄리엣 미첼, 『여성의 지위』, 이형량·김상희 옮김, 동녘, 1984, 105쪽.

방택은 방금 봉순네 집에서 돌아와 잠에 떨어져 있고 아이들도 깨려면 아직 멀었다. 똥레는 식구들이 깨면 먹을 수 있도록 상을 봐두고 나무갈 채비를 차린다.”(141쪽)

따지자면, 여성의 노동은 말할 것도 없이, 『분례기』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도축장이 있고 도축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노동의 관점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노동이 작업장의 노동이 되는 과정은 노동하는 존재의 남성성이 부각되는 과정이며, 이는 노동의 남성성이 뚜렷해지는 과정이다. 삶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실재하는 노동과는 달리 재현의 차원에서 노동은 이렇게 젠더화된다. 황석영의 『객지』가 민중 재현에 근접한 문학으로 가치화되면서, 가치평가가 『분례기』에서 『객지』로 움직이는 동안, 재현된 노동은 젠더화되었다. 노동하는 주체의 남성성이 뚜렷해지고, 여성에 대한 착취는 개별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일상의 습속으로 안착한다. 노동의 젠더화는 노동하는 공간인 작업장에 대한 재현을 통해 재편되고 강화된다.

윤지 간척지 공사장에서 일어난 날뽀팔이 인부들의 노동쟁의를 둘러싼 이야기인 『객지』는 해방 이후 노동소설의 새로운 범주를 마련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작가의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소설적 현실감이 고평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초반 도시 변두리 인물들의 면모들을 보여준 이문구의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공사판에서 사용되던 일본어와 은어와 속어 등 하층민의 언어를 최대한 살리면서 확보된 소설적 현실감이 고평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다. 『객지』의 비평적 호명과 관련해서 기억해두어야 할 사항은 노동소설의 새로운 출발지로서 『객지』가 고평받기 시작한 것은 『창작과비평』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던 1971년(봄호) 즈음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이라는 사실이다.

근년의 문학사에서 노동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또 예술적인 성공에 이른 최초의 결실은 황석영의 중편 『객지』(1971)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서기·감독 조합 같은 중간층의 착취, 그밖에 우리 노동사회에 만연된 온갖 부조리와 모순에 맞선 노동자들의 가열한 싸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독자는 그가 어떤 계층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기 묘사된 노동자들의 고난의 현실에 불가피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동을 뜯어먹고 사는 편이나 아니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확보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의 편이나를 스스로 판가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태일(全泰一) 사건이 70년대 사회사(社會史)의 시발점이었듯이 작품 『객지』의 발표는 70년대 문학사의 출발점이 된다.²³⁾

1977년에 그해 발표된 소설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염무웅은 윤홍길과 조세희의 소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선구적 노동문학으로서 『객지』를 호명한다. 조직과 연대의 관점에서 노동과 노동자의 면모를 살피면서 이루어진 노동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 말하자면 관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취해진 노동 현실에 대한 포착이 『객지』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소설적 재현물의 기원의 자리에 『객지』를 배치한다. 이러한 비평적 배치의 배면에 문학에 대한 관점 변화가 전제되어 있었음은 자명하다. 당대 문학의 조건을 분석하면서 얻은, 상업주의와 소비문화에 의한 인간정신의 파괴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염무웅의 판단은, 문학이 “인간적 및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따라서 문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힘으로 작용해야 한”²⁴⁾다

23) 염무웅, 『최근소설의 경향과 전망-77년의 작품·작품집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47, 1978년 봄호, 328쪽.

24) 염무웅, 『최근소설의 경향과 전망-77년의 작품·작품집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47, 1978년 봄호.

는 강조로 이어진다. 황석영의 『객지』가 새롭게 의미화되는 것은 이런 맥락 속에서였다.

5. ‘노동 현장’ 재현과 직업장 리얼리즘

그런데 사실 『객지』는 근대화 과정에서 농사꾼이 낱품팔이 노동자로 내몰리게 되는 사정을 포착한 소설이다. 『객지』는 노동쟁의가 이루어지는 장면에 대한 묘사에서 실감을 마련하기보다 낱품팔이 노동자들을 떠돌이 유랑객으로 만든 역사적 원인과 사회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확보한다. 염무웅이 완곡하게 지적했듯, 발표된 시점과 재평가가 시작된 시점 사이의 시차에 그저 시대의 본령을 재현한 작품의 의미를 뒤늦게 포착한 비평가의 무능만 놓인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그 시차는 『객지』가 농지를 잃고 농촌에서 밀려났으나 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변두리를 떠돌거나 빈민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 존재들의 삶에 대한 포착으로서의 실감을 확보한 소설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객지』가 노동소설의 새로운 선구로서 호명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좀더 깊게 들여다보게 한다. 전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시기 방직공장을 움직인 주요 노동력이자 파업을 주도한 세력은 여성이었다. 근대 초기인 1920, 30년대 대공장의 노동 주체가 여성이었음을 환기하는 데까지 거슬러 오르지 않더라도,²⁵⁾ 1978년 결국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도화선이 된 YH 사건만 떠올려보더라도, 근대 이후 섬

25) 최민지, 『한국 여성운동 小史』, 이효재 엮음,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1979, 247-250쪽.

유와 방직, 방직 산업을 빼고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상상하기 어렵다. 수출 진흥을 위한 제조업 분야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저임금의 여성 노동력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그들이 제공한 노동력의 성취를 혜택으로서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조업에서 중공업으로의 이동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 즉 노동 현장이 폭력적인 남성성의 세계로 재현되는 전환의 과정은 좀더 세심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객지』에서 여성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우며, 여성의 재현은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성은 합숙소 안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십장의 아내로, 식모로 가 있다는 날품팔이 일용직 노동자의 여동생으로, 여공이라는 거짓말을 동원하면서까지 몸을 팔아 번 돈을 오빠에게 용돈으로 보내는 존재로, 즉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존재로서 그려진다. 『객지』에서 여성은 캐릭터화되지 않으며 가부장제 내에서의 위치성으로만 규정될 뿐이다. 이러한 여성 재현은 남녀 노동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역할 분할에 기초해 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이러한 역할 분할이 단지 노동 차원의 분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분할적 노동에 대한 인식은 재현원리로서 수행되는 과정에서 한쪽의 노동을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격하시키고 다른 한쪽의 노동을 '생산'으로 격상시킨다.

동혁이란 청년은 어느 곳에 가 있거나 낯설고 두려운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듯했고, 언제나 제집에 있는 것처럼 모든 습관을 지켜나가리라 작정한 것 같았다. 그는 자리를 정하자마자 벽 위에 화려한 색도의 사진이 박힌 달력을 벽에 걸었고, 손바닥만한 거울도 세워놓았다. 또한 그는 매일 날짜 위에다 X표를 해나갈 셈이었다.²⁶⁾

그는 자기의 결의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었으며, 거의 텅 비어 버린 듯한 마음에 대하여 스스로 놀랐다. 알 수 없는 강렬한 희망이 어디선가 솟아올라 그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동혁은 상대방 사람들과 동료 인부들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꼭 내일이 아니라도 좋다.”

그는 혼자서 다짐했다.²⁷⁾

바싹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시고 나서 동혁은 다시 남포를 집어 입안으로 질러넣었다. 그것을 입에 문 채로 잠시 발치곶에 늘어져 있는 도화선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윗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어 떨리는 손을 참아가며 조심스레 불을 켰다. 심지 끝에 불이 붙었다. 작은 불뚱을 오리며 선이 타들어오기 시작했다.²⁸⁾

향후 노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주었다고 평가된) 『객지』’는 철저한 노동의 성별 역할 분할의 재현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청년 노동자 동혁은 낙관적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현실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영웅적 면모로 그려진다. 이후 동혁의 후예들은 동혁을 통해 대규모 공장 내에서 노동쟁의를 수행해 나아갈 노동자의 형상을 선취한다. 영웅적 형상화를 통해 ‘노동자=남성성’의 구축 과정에서 영웅적 형상화가 수사적 면모로서 동원된다. 이때 『객지』가 열어준 재현원리의 지평, 이른바 리얼리즘의 재현지평과 관련해서 간파해야 할 것은 『객지』에서 구현된 노동하는 남성 혹은 ‘노동자=남성성’의 형상화가 노동 공간의 재현적 전환 과정과 맞물린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문구의 초기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면모가 비평적 시야 속에서 누락되고 있었다고 해야

26) 황석영, 『객지』, 『객지』, 창작과비평사, 1974, 10쪽.

27) 황석영, 『객지』, 『객지』, 창작과비평사, 1974, 89쪽.

28) 1971년 『창작과비평』 판본과 1974년 단행본 판본에서는 빠졌던 부분으로, 2000년 판본에서 『객지』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황석영, 『객지』, 『객지』, 창비, 2000, 275쪽.

하는데, 말하자면 형상화된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이 놓인 환경 쪽으로 시선을 확장할 때에 재현 원리의 젠더적 누락의 지점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석영의 『객지』나 이문구의 『장한몽』이 건설업으로 대표되는 토목 근대화의 현장을 구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떠돌이 날 품팔이 노동으로 떠밀리는 존재들이라는 인식 저변에서 노동 현장에 관한 한 『객지』나 『장한몽』이 공유하는 것은 “건설은 국력의 상징”이라는 개발 근대적 인식이다. 이는 『객지』나 『장한몽』에서 일어나는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단지 이촌향도의 문제들 안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객지』에서 다루어진 노동운동의 한계는 조직화되기 어려운 존재들이 모인 초기 단계의 노동쟁의에 대한 포착이라기보다 건설 현장이 대표적 노동 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등장한 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재현원리의 지평을 둘러싼 문제는 남성성의 구현이라는 층위에서만 논의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의 의미가 바뀌는 인식 전환이 노동 공간의 전환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 즉 재현 원리의 지평 변화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피자면, 『객지』를 노동소설로 호명한다는 것의 의미는 노동 현장이 건설 현장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것에서 찾아진다. 노동과 노동 현장에 대한 재현의 젠더화가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노동 현장이 가내수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옮겨간 과정과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노동소설 서사의 주요 배경이 건설업, 조선업, 철광산업 현장으로 옮겨간 경향은 그리 돌연한 현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동계급의 남성성을 두고 계일 루빈이 지적했듯, 공업 생산의 확장은, 임금소득 능력, 기계의 숙련, 가내의 가부장제, 임금 생활자 사이의 연대 투쟁을 둘러싸고 조직된 남성성의 형태를 출현시킨다. 따

라서 노동계급의 남성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여자들을 증공업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 배제는 가족 임금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부르주아의 영역 분리 이데올로기에서 끌어온 것이다. 직업별 노동조합 운동은 이런 종류의 남성성을 제도화하는 주된 동력으로 진전되는 것이다.²⁹⁾

잘 알다시피 1960~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지배 아래 열악한 임금노동에 대거 참여한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 가능했다.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여성노동자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임금노동자의 증가율이 남성을 앞질렀지만 정부의 저임금 정책은 가부장제 노사관계 및 합법적 노동탄압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결과적으로 성차별적 착취와 직장 내 성폭력 만연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³⁰⁾ 이것은 말하자면 노동운동과 민중의 재현을 통해 드러난 '의도적 무관심'으로서의 여성혐오이자 '비평 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립된 재현원리의 정치적 효과가 아닐 수 없다.³¹⁾

6. 결론을 대신하여 : 제3세계 여성운동이라는 인식

『여성의 사회의식』(이효재, 평민사, 1978), 『인격의 자유화를 위한 서장』(김행자, 평민사, 1978),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이효재 엮음, 창작과비평사, 1979), 『분단시대의 사회학』(이효재, 1979), 『여성문제의 제

29) 게일 루빈, 『일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운 옮김, 현실문화, 2015, 291쪽.

30) 이효재, 『한국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여성과 사회』, 정우사, 1979, 183쪽;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사회』 7, 1996, 173-174쪽.

31) 허운은 1950년대 냉전 체제하에서 탈식민과 국가재건을 도모한 한국을 두고 '의도적 무관심'으로서의 여성혐오와 그 정치적 효과를 논의한 바 있다. 허운,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35, 2016, 82쪽.

기: 제1회 ‘여성문화제’를 보고」(윤정옥, 1979), 『오늘의 농촌여성』(이지은, 1979), 『좌담: 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이효재·이창숙·김행자·서정미·백낙청, 1979) 등 1970년대 후반에 뚜렷해진 지성계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세계여성 행동계획』³²⁾의 영향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진보적 여성운동 진영은 『세계여성 행동계획』에 비추어, “한국여성으로서 남성과 똑같이 평등·발전·평화를 위한 인류역사의 진보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의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상황 소개에서 여성운동의 이념을 창출하고 그 실천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³³⁾

32) 유엔은 경제사회이사회의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업적을 인정하고 1972년 제27차 총회에서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첫째인 1975년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133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했다(6.19-7.21). 이 대회에서 ‘세계행동계획(World Plan of Action)’이 결정되고 ‘멕시코 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1975-85년을 ‘유엔여성 10년’으로 선포했다. 이 대회의 주제는 ‘평등·발전·평화’였다. 유엔은 행동계획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해인 198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45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했다(7.14-30). ‘평등·발전·평화’와 ‘보건·교육·고용’에 관한 유엔 여성발전 10년 전반기 사업의 평가와 후반기 사업계획을 다루었다. 1985년 ‘유엔여성10년’을 총결산하고 ‘2000년을 향한 여성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제3차 세계여성대회를 153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개최하였다(7.15-26). 이 대회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1975년 세계여성회의의 참가를 위해 1974년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사회부는 ‘1975년 한국여성의 해’로 선포하는 기념식을 개최했고 정부대표 5명과 민간대표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회의 종료 후 1976년에 여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여성행동강령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983년 5월 25일에는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에 서명했고, 1984년 12월에는 몇 개의 유보조항을 남긴 채 비준했다. 이로써 국제적 기준의 여성의제를 점검하고 여성정책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발족과 뒤이어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회 참가준비가 이루어졌다.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참조. <http://www.archives.go.kr>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여성운동의 미래가 제3세계 여성운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전망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성운동의 과제를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이나 남성과 대결하는 투쟁”일 수는 없다고 본 이러한 입장은, “과거에 식민지 민족들이 독립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남녀가 모두 함께 참여한 것이 식민지 여성들로서는 더 중요한 평등이었고, 아직도 신생국들이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세력에서 온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식민주의나 인종주의와 싸우는 일에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제3세계 여성적 인식을 전제했다.’³⁴⁾

1974년부터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여성문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사회연구회’가 결성된다. ‘여성사회연구회’는 1976년 창립총회를 갖고 여성단체를 구성하면서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마련한다.³⁵⁾ 1975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여성인간선언’을 기초로, “우리의 운동은 문화개혁·인간해방의 운동이다. 남성의 정치적 배려에서의 은폐에 불과한 약간의 관리개선을 의미하는 단순한 지위향상이 아닌 일체의 주종사상·억압제도를 거부한 여성의 인간화와 인간 자체가 해방된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의 일환이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이 새로운 여성상의 모색으로서의 의미를 갖지만,³⁶⁾ 그것은 민족과 민중의 위기를 넘지 않는 논의였다.

1960~70년대 이루어진 급격한 근대화와 그로 인해 가시화된 여성 노

33) 광선숙, 『여성운동의 바른 이해』, 『창작과비평』 50, 1978년 겨울호, 207쪽.

34) 이효재·이창숙·김행자·서정미·백낙청, 『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 『창작과비평』 52, 1979년 여름호, 5쪽.

35) 윤정옥, 『여성문제의 제기-제1회 ‘여성문화제’를 보고』, 『창작과비평』 51, 1979년 봄호, 298쪽.

36) 최민지, 『한국 여성운동 小史』, 이효재 엮음,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1979, 258쪽.

동자에 대한 관심은 사회운동이자 인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대적 요청으로서 등장했다.³⁷⁾ 그러나 들끓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노동 사이의 위계적 간극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여성문제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지만, 논의를 이끈 이들 사이에서 가족과 결혼을 넘어선 시야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인식의 미숙함이라기보다 시선의 누락이자 인식적 외면에 가까웠다고 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노동 내부에 놓인 남녀 분할적 위계에 대한 인식은 민족의 이름으로 외면되고 있었다. 여성노동에 대한 논의에서 그러한 누락과 외면은 흔하게 발견되었다. 가령,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과 마더 존스의 『마더 존스』, 시몬느 뻬트르망의 『시몬느 베이유, 불꽃의 여자』에 대한 서평이 뚜렷하게 보여주듯,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는 노동에 대한 논의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은 여권운동이 아니라 ‘노동자의 어머니’로서의 활동을 통해 의미화되고 있었다. 계급적 모순과 민중적 전망이라는 인식지평 위에서 시몬느 베이유는 노동자들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건강한 신뢰와 낙관”이 없는 존재로 혹독하게 비판되었다.³⁸⁾ 노동이 이미 남성적으로 젠더화된 의미망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성별 위계가 민족의 이름으로 봉합되던 때의 여성운동은 “민중적인 여성운동”으로 명명되었는데, 그것은 “단지 여성운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중요한 대중운동, 민중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과거 일제하의 애국운동이나 항일독립운동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듯이 민족분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

37) 박은정, 『조화로운 공동사회를 향한 움직임』, 『창작과비평』 54, 1979년 겨울호, 236쪽.

38) 임종률, 『건강한 신뢰와 비판적 체험』, 『창작과비평』 51, 1979년 봄호, 354-357쪽.

식, 우리 국토가 분단되어 있고 민족이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을 제약하고 있고 동시에 각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통일을 향한 민족의지를 기저로 삼고 나”아갈 때 도 달할 수 있는 것으로,³⁹⁾ 말하자면 민중과 여성 사이에 위계를 만들고 여성을 포괄하는 이름으로 민중을 승인할 때 구현될 수 있는 운동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행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노동이 젠더화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 배치를 벗어난 여성이 소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이 복원해야 할 민중의 이름으로 재소환되는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이때에 비로소 여성과 민중의 위계에 대한 재고가 시작되었다. 문학에서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한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바로 노동의 의미가 재편되기 시작하고 노동의 젠더가 재고되는 동시에 ‘비평 시대’의 권위가 위기로서 질문되기 시작한 때이다. ‘비평 시대’에 대한 재고가 본격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새삼 되짚게 된다.

39) 이효재·이창숙·김행자·서정미·백낙청, 『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 『창작과 비평』 52, 1979년 여름호, 48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문학과지성』, 『창작과비평』
방영웅, 『분레기』, 『창작과비평』 6·7·8, 1967년 여름·가을·겨울호.
_____, 『분레기』, 홍익출판사, 1968.
_____, 『살아가는 이야기』, 창작과비평사, 1974.
_____, 『분레기』, 창작과비평사, 1997.
황석영, 『객지』, 『창작과비평』 20, 1971년 봄호.
_____, 『객지』, 창작과비평사, 1974.
_____, 『객지』, 창작과비평사, 2000.

2. 논문과 단행본

- 강인순, 『이효재와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50-4, 한국사회학회, 2016, 1-25쪽.
권명아, 『소년범, 작가, 음란범』,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권보드래,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이청준과 방영웅, 『산문시대』에서 『창작과비평』까지』, 『한국문학연구』 3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269-312쪽.
김건우, 『국학, 국문학, 국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1970년대 비평의 한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 36, 한국현대문학회, 2012, 525-545쪽.
김성환, 『1960-70년대 계간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405-441쪽.
김우영, 『초기 『창작과비평』과 『분레기』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49, 한국현대문학회, 2016, 379-404쪽.
박수현, 『우리를 상상하는 몇 가지 방식-1970년대 소설과 집단주의』, 『우리문학연구』 42, 2014, 223-260쪽.
소영현, 『중심/주변의 위상학과 한반도라는 로컬리티』, 『현대문학의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7-35쪽.
_____, 『올빼미의 숲』, 문학과지성사, 2017.
손유경, 『현장과 육체』, 『현대문학의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37-70쪽.
송은영, 『『문학과지성』의 초기 행보와 민족주의 비판』,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 2015, 11-46쪽.
- 오혜진, 『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 『문화과학』 85, 2016년 봄호, 83-105쪽.
- 이효재, 『여성과 사회』, 정우사, 1979.
- _____,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사회』 7, 한국여성연구소, 1996, 160-176쪽.
- 이효재 엮음,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1979.
- 정지영, 『조선후기 첩과 가족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역사』 61, 한국사회사학회, 2004, 6-42쪽.
- 조연정, 『세속화하는 지성—『문학과지성』의 지성 담론에 대한 재고』, 『한국현대문학연구』 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313-354쪽.
- 최기숙·소영현 외, 『집합감성의 계보』, 앨피, 2017.
- 허 윤,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35, 역사문제연구소, 2016, 79-115쪽.
- 계일 루빈, 『일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옮김, 현실문화, 2015.
- 윌리엄 M. 레디, 『감정의 항해—감정 이론, 감정사, 프랑스혁명』, 김학이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 줄리엣 미첼, 『여성의 지위』, 이형량·김상희 옮김, 동녘, 1984.

Abstract

The Origin of the Era of Gendered Criticism and its Complaint
— From “A Bunye Story” to “A Strange Land”, the Shift of Workplace
and the Construction of “Laborer-Masculinity”

So, Young-Hyun(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imed to look into the representative object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1970s when the era of criticism opened. I have reviewed the representation framework of Korean literature and its critique from a gender perspective. How do we find missing point and excluded spaces in literary criticism based on the gender perspective? A Reading literature from a gender perspective is not about studying female characters or looking at female novelists' viewpoints. It means examining the gendered nature in the expressed reality. Accordingly, I examined the horizon of critical discourse, focusing on novels that were selected or discussed as representative works by critics around the 1970s. Concretely, I reviewed of Bang Young-woong's novel titled “A Bunye story” and Hwang Seok-yeong's novel titled “A strange land” from a gender perspective.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apture the hidden points by the representation framework of Korean literature and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new understanding of the representation framework itself.

(Keywords: the era of criticism, gender, collective emotion, indecency, soundness, Bang Young-woong, “A Bunye Story”, Hwang Seok-young, “A Strange Land”)

논문투고일 : 2018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7월 29일

수정완료일 : 2018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 2018년 8월 9일